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의를 위한 기도

(시편 7:1-17)

시편 1, 2편은 시편의 서론으로서 다윗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40편까지는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점차 강렬한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지금까지의 시편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다윗은 원수들이 갖은 모략으로 그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덤벼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 1. 거짓된 비난들

이 시의 히브리어 제목은 ‘다윗의 식가온’입니다. 식가온이란 음의 이름으로서 이 시를 식가온 음으로 맞춰서 부른 것으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시편 7편에서 다윗은 비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 4절에서 자신이 친구를 배신했고 또 남을 해쳤고 명분 없이 남의 것을 약탈하는 등의 비난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5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은 그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를 비난하는 내용에서만 끊는 자유롭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모략과 증상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고통은 의인이 죄인 취급을 받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원통한 소리를 원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공의로워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가 비난의 대상이 될 경우 도덕적 권위가 상실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도덕적 무정부 상태에 빠지거나 군사적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비난과 불의한 비방을 당할 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비방이 남을 속이고 남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 2. 무죄한 자가 있는가

시편 7편에서 다윗이 거짓 비방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무죄 선언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죄한 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롬 3:10).

다윗은 스스로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무죄하다고 한 것은 당시 당하고 있는 비난과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결코 도덕적으로 무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복수할 수 있었지만 궁극적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었습니다. 이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방패로 삼겠다던 다윗의 신앙이 있습니다(시 3:3).

### 3. 의로운인가 공평인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8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에 호소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의인이 죄인처럼 매도되는 것도, 악인이 의인처럼 존대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의인이 악인처럼 매도당하고 악인은 성인처럼 환대를 받습니다. 질서도 가치관도 무너진 세상입니다.**

했습니다. 본문 6-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긴급하여 ‘일어나서’, ‘깨소서’, ‘명령하소서’ ‘심판하소서’, ‘감찰하소서’와 같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변증학자 C. S. Lewis는 두 종류의 의, 곧 하늘의 의와 세상적인 의를 제시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의는 심판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무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날을 두려움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과 같은 이들은 심판날이 와도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죄인 시 당하는 모순은 옛날에만 있던 일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잔존하는 사회적 고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단순한 의로움을 넘어 그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4. 하나님께 대한 신뢰

본문 10-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죄에 대해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억울할 때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14절에서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며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도 역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고 했습니다.

시인은 1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로 끝맺으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매도되는 것도, 악인이 의인처럼 존대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의인이 악인처럼 매도당하고 악인은 성인처럼 환대를 받습니다. 질서도 가치관도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10절). 그는 시들 줄 모르는 싱싱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비탄이 아닌 찬양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17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여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연합 찬양대 찬양 Festival 연습시작

## 연합찬양 Festival - 11월25일(금) 밤7시에 열려

교회 설립 14주년·예배당 헌당 감사와 경축 행사 14가지 프로그램 중 12번째 행사인 연합 찬양대 찬양 Festival이 오는 11월25일(금) 밤 7시에 열린다.

이를 위해 이종윤 목사가 작시하고 박정선 장로가 작곡한 칸타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의 연습에 돌입케 된다. 참가 대상은 서울교회 찬양대 원으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은 매주 1회 이상 주중 연습을 찬양대 별로 시행하고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연합찬양대 연습에 들어간다.

단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은 물론 은빛 찬양대원, 그레이스 핸드벨 단원, 아멘 관현악단 대원 중 참여를 원하는 분은 소속 찬양대별로 연습을 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 연습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

온 교회가 역사적인 헌당을 감사하는 찬양 Festival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성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찬양위원회(위원장 임상현 장로)는 바라고 있다.

# 서울 암송필사 성경 마무리

## 1852명 성도의 참여 가운데 은혜 중에 마무리 돼

교회설립 14주년·헌당식 감사와 경축행사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6일 필사를 시작한 서울 암송필사 성경(위원장 김세재 장로)의 필사가 종료되었고 이제 제본 등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총 1,852명의 성

도가 참여 하였고 1991년 교회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1991권의 사본을 만든다.

원본은 언약케 크기의 크리스탈 상자에 넣어 교회 3층과 4층 사이 북쪽 계단참에 전시될 것이며 세계 유수 도서관에 사본을 만들어 기증케 된다.

# 2005 열린바자 교구별 판매품목 확정

## 바자기간:9월7일(수)-9일(금) 3일간

이웃사랑, 선교와 헌당을 위한 2005 열린바자에 각 교구에서 판매할 품목이 확정되었다.

바자에 참여하는 각 교구는 회의를 통해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바자 기간 동안 열심히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선교와 헌당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려고 기도하며 준비하

고 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일기를 허락하시어 많은 성도와 이웃 주민이 참석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한다.

## 2005년 열린 바자를 기다리며

그렇게 덥기만 하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고 날씨도 제법 선선해져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 추석이 다음 주, 우리교회 열린바자가 바로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바자를 준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바쁜 손길을 보니 문득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바자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교구를 위하여 정신없이 물건을 팔다보면 몸은 피곤하여 파김치처럼 늘어지고 하루 종일 소리치며 목청을 높인 탓에 목이 쉬어 말도 제대로 안나오지만 마음만은 즐거워 물건을 팔며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땀냄새 가득한 옷에 다시 땀을 닦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물건을 피기를 반복하지만 입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다시 바자가 시작됩니다. 교구마다 특색있는 상품을 준비하고 저마다 시간과 힘을 바쳐서 헌신할 것입니다.

시름하지만 너무나 정겨웠고 오히려 향기로웠던 그 땀 냄새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 헌신할 때 이번 바자의 주제인 이웃사랑, 선교와 헌당을 우리의 작은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보일 것입니다. 바자에 수고하실 모든 성도님들 파이팅... (순례자)



## 후반기 열린프로그램 2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금주 일제 개강

후반기 열린프로그램과 2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금주 중에 일제히 개강한다. 성도와 주민을 위한 열린프로그램에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여 여가활용과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또한 '전도와 선교'를 주제로 열리는 2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도 내일(월) 오후 2시에 개강한다. 이번 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교회갱신의 기회로 삼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한다.

## 705호실 남자휴게실 배정

우리교회는 각 호실 사용에 있어서 특정 부서나 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다. 부서간 빈 호실과 빈 시간이 있으면 어느 부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교회는 그동안 남자성도들의 휴게실 공간이 부족하였던바 705호실을 남자휴게실로 사용키로 하고 705호를 사용하던 Vision2020 부서는 지하 2층에 새로 만든 소망방(B2)로 옮겨 사용토록 하였다.

## 8월새가족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지난 8월중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는다. 8월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민경 강영태 장윤아 강은진 김규리 김나경 김순태 김영숙 김원진 김윤희 김은영 김재영 김중본 김한성 김해성 김홍래 나미경 문인영 박길자 박상협 박서영 박은숙 박준우 박혜성 백성은 백승갑 백시진 백인실 소만수 소재현 심인정 양경흠 양동덕 양승인 양지훈 엄수경 엄효경 오현선 오호재 위현주 유봉려 유영남 유준형 윤동선 윤영진 이경록 이경민 이규호 이라현 이무준 이선경 이연주 이재욱 이주희 이창목 임가는 장진원 전광환 전병일 정다예 정단은 정순례 조상환 조승하 조재민 조재석 조정순 천점순 최재원 함덕균 함진경 함진아 허미경 황나리 이상 74명

## 금주의 성구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눅19:41-42)

As he approached Jerusalem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and said, "If you, even you, had only known on this day what would bring you peace--but now it is hidden from your eyes. (Luke 19:41-42 [NIV])



2005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을 개강하며...

# 말씀잔치에 초대 합니다!

## 서울 성경대학 임옥균 집사(서울성경대학)

2005년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내일(9월 5일)부터 개강되어 10주간 진행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말씀잔치가 벌어집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윤영국 목사님의 요한1,2,3서 강해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이태훈 목사님의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상고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새벽에는 이용식 목사님의 고린도 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공부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한상은 목사님의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비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서울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웃주민,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극 권면해 복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사람이 한 강좌에 꼭 참여하여 이 말씀잔치에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 살롬경로대학 이재윤 집사(살롬경로대학)

한껏 기승을 부리던 금년 여름 무더위도 하나님의 자연 질서 앞에서 굴복하니 산천의 수목들이 인고(忍苦)의 자랑스러운 열매들을 탐스럽게 맺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노년을 보람되게 평안히 살라" 하시며 경로대학을 개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의 뜨거운 정성과 기도로 세상의 경로대학과 달리 깊은 신앙과 사랑으로 연단(煉丹)된 살

## 세계선교대학 최형열집사(선교위원회)

롬 경로대학이 가을학기를 맞이하여 활짝 문을 열고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노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건강법과 넘어지기 쉬운 신앙을 더욱 견고히 다지며 이 시대에 존경받는 노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양 강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지체 말고 나오셔서 즐거운 찬양과 웃음으로 잃어버린 활력을 다시 찾으시고 노년기의 건강 관리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도회원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준비된 육의 양식도 공급 받으시고 황혼기에 엄습하는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활동 순서에 참가하신 후 침술 치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마지막 날에는 교회 헌당을 기념하는 이웃사랑 실천 프로그램으로 아주 특별한 경로잔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모든 어르신들은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어 즐겁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주부대학 신용식 장로(주부대학)

제10학기 서울주부대학이 2005년 9월6일(화) - 11월 8일(화)까지 진행 됩니다.

주부대학은 10학기로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참여 인원이 매 학기 마다 늘어가고 프로그램의 호응도도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

그래서 이번 10학기 서울주부대학은 그 문제점을 보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대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음악, 미술, 문학,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전달이 교양특강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녀교육과 건강 특강은 많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100명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의 역동성이 지금처럼 활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선교사 파송 12,000여명으로 세계 2위이고, 서울교회는 6명의 선교사를 3개 지역에 파송하고 해마다 단기선교를 실시하여 올해 다섯 번째로 총 13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제1기 세계선교대학 수료생이 약 80여명으로 이제는 선교에 대한 기도 열정이 서서히 높아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지난 학기 세계선교대학에는 9개 권역별 225개국 나라들의 기도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로 이어졌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선교중심 교회와 목회 - 교회와 선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의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선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선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선교를 위한 각종 행정사항, 파송선교사님의 고충과 선교의 산 역사, 그리고 선교사로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생생한 간증, 선교관련 담당목사님들의 열렬한 강의가 10주간 계속되면서 그 어느 대학보다도 뜨거운 시간들로 이어졌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 선교대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두 갈림길에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교육과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모두 한 마음으로 달려야 하고 서울교회의 제2기 도약을 위한 선교하는 일에 함께 충성해야 합니다.

제2기 세계선교대학은 9월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501호에서 10주간 모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 함께 참여하여 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배우고 선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들로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하며 문 열어 놓고 기다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기도하는 사랑의 가정

## 이상옥/손영의 (신혼가정부)

여름 막바지에 신혼가정부는 진부령 정상에 알프스 글로빌 펜션에서 "기도하는 사랑의 가정"이란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첫날 개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시간 관계상 깊이 나누지 못했던 각 개인 삶의 역사 즉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로 서로의 마음 문을 활짝 열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은 식사후 가까운 분교 운동장의 나무 그늘에 앉아 목사님의 "기도학교"란 제목의 특강을 들었다. 한편에선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흥장난을 하고 한편에선 갓난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어 평화롭게 잠을 자고...  
기도하는 사랑



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믿음이며 악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었다. 오후 시간에는 이종윤 목사님께서 방문하시어 귀한 특강을 해주셨다. 좁은 펜션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목사님 주위에 둘러 앉아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는 오래전 신혼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다음 4가지 지침을 주셨다. 그 지침으로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셨다.

01. 비전을 가져라
  02.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라.
  03. 위선을 버리고 회개하라.
  04. 지도자가 되라.
- 마지막 날

아침에는 다시 한번 성경공부를 위해 부부들을 모아서 부부의 만족한 성생활이란 주제로 공부를 하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시간에 쫓겨 채우지 못했던 신혼생활의 영적인 부분을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해 가득 채워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모이면 돈과 자기자랑으로 채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과 구별되게 기도로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 부부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과 지혜를 나의 영혼에 채울 수 있었던 수련회였다.

앞으로 우리 신혼가정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우리 부부들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님과 예수님이 도우시는 우리부부가 될 것을 결단한다.

### 제10기 찬양대양성반 오늘 개강

오늘 오후 1시30분 601호에서 제10기 찬양대양성반이 개강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0일(토) 장로교신학회 제7차 학술발표회를 소집한다.
- 이사: 예환식 집사 송금자 집사(11교구) 강동구 명일동 257번지 주공@ T. 442-1176  
송영준 성도 이영선 성도(11교구) 송파구 거여동 거여@  
심군섭, 정수는 성도(6교구) 은평구 녹번동 21-247
- 득녀: 심군섭, 정수는 성도(6교구)
- 주간식당봉사: 에스더전도회(9월4일)  
한나전도회(9월11일)
- 금주의 식사: 지혜영 전도사,  
이은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청사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 2005년 농어촌 100교회 자매교회

순례자는 금주부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농어촌100교회 자매교회인 대구 남노회 산하 39개 교회를 매주 한 교회씩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다.

### 1) 만촌엘림교회

교역자: 윤석홍 목사

\*교인현황: 장년:7명 청년:2명 중교:5명 아동:10명 총24명

\*기도제목

- 협력교회가 부흥되게
-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 교회가 라마나웃(작은 기도공동체)이 되도록 성령으로 덮여주소서
- 전도일꾼 10팀을 주소서

\*교회주소: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884-11

\*후원자: 사라여전도회, 김형신-현기욱, 나미용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웃사랑·선교와 현당을 위한 바자와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 위해
2.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체 학소서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령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